

호남 의원들 “지역구 의석수 유지해야”

국회서 기자회견 “여야 합의 실패 땀 호남 5석 줄어” 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과정 당리 지나쳐” 비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지역구 260석 유지를 위한 균형의석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유지되고 호남에서는 5석이 줄게 된다”며 “호남 전체 의석이 30석에서 25석으로 줄어들면 호남 정치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여당은 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광주, 전남·북 의석이 1석도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호남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의원들은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지역구 의석수 8석 유지를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현재 결정과 정계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 결과 광주 국회의원 수가 축소될 위기”라며 “호남 정치의 핵심 지역인 광주의 의원 수 축소는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시의원들은 “정치·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광주 국회의원 수는

유지되어야 한다”며 “여야는 논란의 불씨를 키우지 말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유철 원내대표 및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 의장은 원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해 정당적 국회 운영을 촉구하는 당부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의정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며 “새누리당이 내년 4월에 선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형남인데 형남이 너무 자기 당의 이익, 당리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만행이 그렇게 주장하면 (협상) 성사가 어렵다”면서 “만약 성사가 안 돼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구) 246석의 현재 방법으로 가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그로써 쓰나미가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이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의 이같은 발언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발끈했다. 원 원내대표는 “총선물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그 말을 나한테 할 필요 없다”고 불쾌감을 내비치자, “선거구획정에 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야당은) 관련없는 선거제도를 연계해 야당 지도부로 (넘어)온 것”이라며 “(우리는) 선거제도는 별도로 논의하고, 12월 15일까지 정치신인이 예비등록을 해야 하니 선거구획정이라도 해서 넘겨달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왼쪽 네번째) 등 호남지역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까지 제3지대에서 통합 신당 만들어야”

박주선 무소속 의원



그는 “안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선택의 어려움과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 특권 세력, 친노패권세력, 좌우극단주의 세력을 제외한 양심적 정치인들이 제3지대에서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8일 “12월말까지 제3지대에서 하나로 통합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통합신당추진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탈당 후 신당 창당 대열에 합류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토붕와해(土崩瓦解) : 사물이 여지없이 무너져나가는 손질 수 없는 지경이 됨)의 지경에 빠진 구제 불능의 정당, ‘국민두통정당’이라며 “야당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계파패권 정치, 낡은 진보를 허무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야권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이 국민에게 꿈을 싣 티우는 희망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하나로 된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서너 갈래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는 신당 세력은 각자 행보를 멈추고 하나로 통합하라는 민심이 귀 기울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로베이스에서 통합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빈집 주차장 활용’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동철 새정치 의원 발의



에 동의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지난해까지 정비한 빈집은 370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동철(새정치·광산 갑) 의원은 8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하는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광주시의 빈집은 2500여동에 이르지만, 이 중 92%는 철거

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되는 등 주거환경 저해 요인임에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주택 밀집 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온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여야 쟁점법안 평행선...결국 국회 빈손 종료 되나

서비스법·경제법 등 이견...회동 20분만에 종료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여야 합의 있어야 가능”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막판 극적 합의가 없다면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들 법안의 일괄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전산 소관 상임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위원했고, 원샷법과 상생협력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협상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일괄 타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에 심사기한을 지정해 직권상정을 준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합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면서 “의도적 태업을 하는 비정상성에 대해 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이들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 등의 심사 기한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포함한 법적 검토를 해보겠지만,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며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심사 기한 지정은 전제지변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이뤄지게 돼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심은 광주 책임지는 새 정당 원해”

정용화 미래연대 토론회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은 8일 “반(反) 문재인 대표, 반 새정치민주연합 등 누구를 반대하는 명분으로는 신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연대 창립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광주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점을 거부하고 광주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원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호남정치 복구의 방향과 방법’이란 주제 발표에서 “신당은 영남패권주의에 기반한 새누리당과 친노패권주의에 기반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넘어야

한다”며 “좌우 기득권을 깨부수고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당은 두갈래, 세갈래로 분열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이는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추진세력은 원탁회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구 미래경제개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강행욱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영삼 전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조정관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축사를 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사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빛고을새마을금고

| | | |
|---|--|--|
|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 <p>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p> | <p>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p> |
|---|--|--|